

한국성장률 전망치 0.3%P 내린 S&P “이유 있네”

꿈틀 금리·뛰는 물가·나는 유가... 新 3高 몰려온다

올해 ‘유가 100달러’ 진입 가능성 금리 지속 상승에 소비심리 위축

“한국 경제의 성과는 그간의 경제성장, 고령화, 중국 성장세 약화 등으로 여타 선진국의 평균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다.”

신용평가사인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 이 같은 우려도 함께 했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3.0%에서 2.7%로 하향)내렸다.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란 영화속 얘기 처럼 한국경제가 거센 풍랑의 한 가운데 있다. 미·중 무역전쟁은 갈수록 격화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여기에 국제 유가는 70달러 대로 뛰면서 한국 등 신흥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에 묶어놨지만 시장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장바구니 물가는 심상치 않은 상승세다.

유가와 금리, 물가가 동시에 오르는 ‘신(新) 3고(高)’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이 먹구름 수준에서 태풍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생산력 10년 전 수준으로 하락...100달러의 공포 ↑

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원유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추정〉

(단위: %)

국제 유가 시나리오	GDP	GNI	소비	투자	수출	CPI
60\$/bbl	-0.22	-0.29	-0.19	-1.76	0.25	0.14
70\$/bbl	-0.59	-0.77	-0.50	-4.66	0.67	0.37
80\$/bbl	-0.96	-1.25	-0.81	-7.56	1.08	0.61

주1)추정 방법은 현대경제연구원(2014), ‘국제 유가 하락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참고.
주2) 분기별 평균 WTI 유가를 기준으로 했으며 유가상승 4분기 후의 영향.
주3) 2017년 4분기(10월 2일~11월 28일) 평균 WTI 유가(53.9\$/bbl) 대비 시나리오별 상승률을 이용하여 산출.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1.18달러(1.6%) 오른 76.4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일 종가 기준으로 약 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뒤 이를 만에 고점을 갈아치운 셈이다.

올해 안에 ‘유가 100달러 시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ANZ은행은 1일 “시장은 유가 100달러 돌파에 온 관심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 드리스콜 JTD에너지 시큐리티 분석가도 “필연적이지는 않더라도 유가 100달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여유생산능력이 2007~2008년 유가 대급등 수준으로 감소했다”면서 “세계 수요는 견조세를 유지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중 100달러를 웃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치솟는 국제유가는 한국경제에 큰 짐이다. 석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국제유가 상승이 경제 전반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 기업은 원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 생산활동과

투자는 위축된다. 실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았던 2011년~2014년 코스피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률은 7.5%에서 5.1%로 하락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까지 오르면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약화로 소비가 0.81% 줄어 들고 기업 매출 감소, 원가 상승 등으로 투자는 7.56% 감소한다.

수출도 판매 단가 상승 효과로 단기적으로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료

비, 난방비 등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소비자가 쉽게 줄일 수 있는 품목이 아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비용 상승은 고스란히 지출 여력 감소로 이어져 최근에서야 겨우 나타나고 있는 소비 회복세를 꺾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금리·물가도 ↑...지갑 열 여유가 없어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0.25포인트 올린 후 9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주요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다. 1일 자료 고시한 주요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일정 기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대출) 금리는 3주 전보다 0.10~0.12%포인트 올라 최고 4% 중반대다. 8월 잔액기준 코픽스는 1.89%로 2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으며 지난해 8월(1.59%) 이후 12개월 연속 올랐다.

가산금리도 오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국내 은행권 주요 대출 금리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것,

금리가 오르면 가계는 쓸 돈이 줄어든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연간 9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무엇보다 저신용·저소득층, 다중채무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대출 연체나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장바구니 물가는 걱정 수준이다. 작년 7월 80kg 한 가마에 12만8500원이었던 산지 쌀값은 1년 만에 17만7052원까지 올랐다. 서울택시요금도 인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기본요금 4000원 인상을 결정했다.

소비자 물가는 2%대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대신증권은 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3%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BOK이슈노트 ‘우리나라의 관리물가 현황 및 거시 경제적 파급 영향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원가 변동 요인에도 관리품목의 가격 조정을 지나치게 억제해 인상 압력이 점점 쌓이면 추후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M15’에서 열린 제8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소차 등 신산업 투자로 11만개 일자리 창출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의결 125조원 투자... 민간 프로젝트 지원

정부가 전기·수소차를 포함한 제조업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등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해 2022년까지 10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신산업 분야는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로, 일자리위가 기업들로부터 취합한 민간 투자 프로젝트는 141개다.

투자 규모를 모두 합하면 124조 9000억 원에 달한다. 민간기업이 수행할 프로젝트로 9만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 지원사업으로 1만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일자리위의 복안이다.

이는 민간 투자 프로젝트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직접 창출하는 일자리 개수로,

파급 효과로 인한 간접고용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게 일자리위의 설명이다.

민간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중소·중견 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48건(34.0%)이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은 98건(69.5%)이다. 내년까지 착공되는 프로젝트도 105건(74.5%)에 달한다.

일자리위는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해 신속 인·허가, 규제 개선, 산업 인프라 적기 공급 등 직접적인 애로사항 해결과 초기 시장 창출, 시범·실증사업 등 맞춤형 지원으로 적기에 투자 실행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차인 수소·전기차 분야에서는 완성차업체, 부품업체,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19개 프로젝트에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대기업과 부품·장비 협력사 등이 15개 프로젝트에 96조원을 투자한다.

일자리 창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에너지 신산업이다. SPC와 발전사업자 등이 대규모 태양광·풍력과 군(軍) 재생에너지 등 71개 프로젝트에 12조 8000억 원을 투자해 6만 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평화 예술 헤이리

화술 판아트

헤이리 판아트 페스티벌

2018 10.6-10.14

개막식 | 2018. 10. 6(토) 오후 4시 30분
장 소 | 헤이리에술마을 갈대광장

주최 파주시, 사단법인 헤이리
주관 헤이리에술마을 예술위원회
T. 031.946.8551 F. 031.946.8550

시각예술제

- 박물관 & 미술관
- 갤러리
- Open studio in 헤이리
- Artist in 헤이리 (헤이리 작가전)
- 10회 아트로드77 2018
 - Flow-Scape 두 개의 강은 함께 흐른다
 - 77 아트쉐어링
- (사)한국미술협회 파주시부 전시회

공연예술제

- 파주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 타악기 공연 <호연>
- K-Pop 그룹 공연
 - 오마이जू, 뉴타운보이즈, 데스티니
- 생명사랑 영화상영
 - 조은성 <나는 길고양이로소이다>
 - 황윤 <잠식가족의 딜레마>
- 헤이리 필JAZZ
 - 필로멜라, 장혁재밴드
- 헤이리 추억 속으로
 - 양키즈, 데블스, 조태복의 덕혜밀리
- 프린지 공연

참여예술제

- 우산에 그리는 평화
- 그리고... 앉아요
- 소원 열매 해피트리
- 2018 미술주간 기획 프로그램 아트로드77, 칼라에 물들다
 - 관계의 법상
 - 전시투어
 - 소망, 평화 나무숲대만들기
 - 헤이리건축투어
 - 전통부부주 만들기
 - 소망평화목판화만들기 & 작가와의 만남

www.heyri.net
*파주시민 활인 (리플릿 기재공간)